보성군, 청년 생애 아우른 맞춤형 정책 박차

231억원 투입 60개 사업 편성

주거·문화·교육·일자리 등 지원

만원주택·신혼부부 이사비용도

보성군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지역, 일하고 싶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231억원 규모, 60여 개의 청년정책 사업을 편성해 주거·자립·교육·돌봄·문화·참여 등 청년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은 청년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업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매칭해 3년 뒤 최대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근속장려금'을 통해 4년간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해 근속과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만원주택 조성,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이사비용 및 주택 대출 이자 지원 등 실질적 생활비 절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망을 촘촘히 다지고 있다.

군은 청년이 머물며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마을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보성읍 '퀘스트랜드', 득량면 '메모리&멜로디마을', 회천면 '전체차랩' 등 3곳이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로 선정된 보성읍 '퀘스트랜드'는 심리 치유와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과 공동체 형성에 힘쓰고 있다. 득량면 '메모리&멜로디마을'은 폐교를 예술 창작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 문화의 활력을 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형 청년마을로 선정된 '전체차랩(전체(ALL)+차(茶)+랩(LAB))'은 보성의 차 문화를 기반으로 청년 창업 실험공간, 상품 개발, 단기살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청년 유입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관계를 맺고 스스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 기반도 강화했다.

'보성 청년 네트워크 조성사업'을 통해 읍면 단위 청년단체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봉사·문화 활동·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보성군 청년센터'는 청년정책의 중심이자, 배움·소통·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보성 청년아카데미'를 통해 AI 자격증반, 바리스타 과정, 공예 클래스 등 11개 강좌를 운영해 대도시로 가지 않아도 전문교육과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 것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며 "청년이 보성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은 조력자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언 기자

고흥군 조기폐차 지원 '올해 마지막' 접수

오늘부터 내달 7일까지

고흥군은 26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올해 마지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와 전라남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으로,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고흥군민으로, 고흥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정상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군청 환경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서류심사와 차량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을 지원한다.

고흥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청 환경정책과(061-830-5498) 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현진 기자

'제7회 2025 화순 난 명품 박람회'가 25~26일 이틀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화순군 제공>

전국 난 애호가 발길…'화순 蘭 박람회' 성료

지난 25-26일 하니움스포츠센터서

1천여점 작품 전시·경매 등 '인기'

전국의 난(蘭) 애호가들의 발길을 끈 '제7회 2025 화순 난 명품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25~26일 이틀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첫날 오후 1시30분 소프라노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신정훈 국회의원,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주요 난 단체장 등 3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과 특별대상 등 수상작들은 한국춘란의 예술적 가치와 재배 기술의 수준을 보여줬다.

행사장 한편에서 열린 화순난연합회 경매는 가장 큰 화제를 모았다.

희귀 품종이 등장할 때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 작품은 예상가를 뛰어넘는 고가에 낙찰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또한 난 관련 자재 판매부스와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재배 상담,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열려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화순난연합회를 비롯해 (사)한국난문화협회, (사)한국난보존협회, 한국난산업총연합회, 대한민국난산업총협회 등 5개 주요 단체가 공동 주관했으며 1천여점이 넘는 수준 높은 난 작품이 전시됐다.

구복규 군수는 "화순이 대한민국 난 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군, 생활지원사와 치매 돌봄망 구축

1천360가구 실태조사·맞춤 지원

담양군 치매안심센터는 26일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85명과 협력해 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인지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생활지원사들이 돌봄서비스 대상자 1천360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통해 인지저하 징후가 있거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조기에 발굴했으며,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인지프로그램·사례관리 서비스와 즉시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담양향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생활지원사 치매역량강화 교육'에서는 인지선별검사와 인지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사진>

이를 통해 생활지원사들이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역량을 강화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의 조기 지원과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최종보고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여수문화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박수관 공동위원장, 도·시의원, 자문위원, 지역 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조직위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실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주요 전시관은 디지털·미디어아트 전시에 실물 콘텐츠를 보강하고 세대별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늘막·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대책 강화, 섬테마존·요트투어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 인력 보강, 섬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된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돌산 주행사장 주변에는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행사장 조성사업은 내년 하반기 완공 및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직위는 이달 말 종합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5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며 "세계인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수관 공동위원장은 "국제행사에 걸맞은 세밀한 준비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군민고충처리委 위촉

장성군은 "최근 '청렴군민감사관·군민고충처리위원회 합동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청렴군민감사관'은 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은 주민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주민 불편 및 비위 제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부당 행정처리 감사 청구 ▲군정 발전 의견 제시 등이 있다. 또한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민원 지원 ▲시정 권고 등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청렴군민감사관과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군민 중심의 행정 실현과 신뢰받는 장성군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흥 통일열차, 평화의 꿈 안고 출발"

군민 352명 강원도 철원行

장흥군은 26일 "지난 24일 군민 352명을 태운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가 강원도 철원을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참가자 모집 당시 조기 마감될 만큼 군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참가자들은 오전 4시 장흥을 출발해 광주송정역 출정식 후 열차에 탑승, 동두천역을 거쳐 철원으로 이동했다.

열차 안에서는 통일 인문학 강연과 문화 공연이 함께 진행돼 이동시간 동안 풍성한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했다.

한 참가자는 "통일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철원에 도착한 군민들은 백마고지 전투지·노동당사·평화전망대 등 안보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현실을 체험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통일열차는 군민이 직접 현장을 찾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의 상징을 살려 지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